

10.29 참사 취재한 영상기자들, 심각한 트라우마 호소

영상기자들, '확장된 기억' 때문에 트라우마 피해 다른 언론직종 비해 더 심각

10.29이태원참사 초기, 참사현장과 합동분향소, 영안실 등을 취재했던 많은 영상기자들이 심각한 취재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한국영상기자협회가 지난 12월 초 강릉에서 개최한 신입주니어회원연수와 12월 12일 '10.29참사 취재영상 기자간담회'에 참여한 영상기자들은 참사과정에서 피해자 취재에 대한 윤리적 갈등, 자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 진상규명을 위한 언론인의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느껴 큰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10.29참사보도에 참여한 영상기자들이 자연치인 경우가 많아, 이번 참사 취재로 인한 심리적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영상기자로 언론인 트라우마를 연구해 온 박동혁 박사(MBC디지털뉴스룸)는 "영상기자는 뉴스 제작 현장에서 대상을 클로즈업하는 등 '확장된 기억'으로 언론종사가 가운데 가장 크게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통계

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트라우마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 입사 후 5년이 되지 않은 젊은 기자들에게 심리적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지원과 관심이 적극적으로 지속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사들 해당 취재진 트라우마 치료 위해 다양한 노력 진행 중이지만 개선의견도

실제로, 이번 10.29참사보도 이후, 각 방송사와 언론사들은 신속하게 참사취재를 경험한 취재진과 스태프들에 대한 트라우마치료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실시하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많은 방송사들이 참사 취재진은 물론이고, 참사보도에 참여한 오디오맨, AD, 운전기사 등 비정규직 직원들까지 트라우마치료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있고, 사내에 임시심리상담소를 개설해 운영하는 노력도 펼치고 있다. 이는 2014년 세월호참사 당시, 많은 취재참가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호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내의 체계적인 치료, 극복지원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했던 것과는 비교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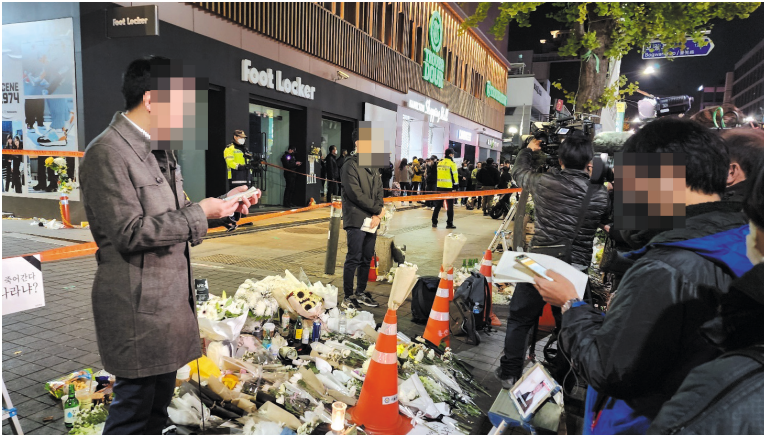
는 긍정적 변화이다.

하지만, 규모가 큰 방송사나 언론사와는 달리, 규모가 작은 방송사와 언론사들에서는 취재트라우마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는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효과적 심리치료가 이뤄지는데 여러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업무특성 맞는 트라우마 극복지원 시스템 마련 위해 협회지원 노력 필요

많은 방송사들이 영상기자 인력 부족으로 인해, 취재트라우마 치료 중인 영상기자가 다시 같은 취재장소로 취재를 갈 수 밖에 없는 상황과 데스크들의 업무지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참사취재진의 심리치료 의무화가 일부 방송사에서만 시행되고 있어, 함께 트라우마의 위험에 노출된 오디오맨, 운전기사, AD 등의 비정규직들이 치료에서 소외되고 있고, 그들이 호소하는 심리적 고통을 이야기 듣고, 그로 인한, 미안함과 자책감을 갖게 된다고 많은 영상기자들이 이야기 하고 있다.

협회, <영상보도가이드라인> 개



정작업 때, 재난참사취재 분야 강회기로

영상기자들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회가 나서 취재트라우마를 겪는 모든 취재진에 대한 치료의무화를 방송사들에 요청하고, 이들의 트라우마극복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10.29 참사취재에 참여한 영상기자들은 협회가 제정하고, 보급, 교육해온 <영상보도가이드라인>의 재난취재와 관련한 내용들을 그동안 숙지하고 현장에서 적용하려고 노력했지만, 참사현장에서 구체화해 적용하는데 많은 갈등을 느꼈다는 의견들을 전했다. 그리

고, 이번에 현장에서 많은 영상기자들이 고민했던 참사보도, 재난보도와 관련한 갈등의 상황을 협회가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연구해 참사재난보도현장에 더 가까운 영상보도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협회는 2023년에 추진 예정인 <2024영상보도가이드라인>개정사업에 이런 현장기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참사재난보도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현실에 더 가까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인정숙, 오주아 기자 종합 (관련기사면, 5면 계속)

“국제보도상으로서의 위상과 가치를 확인한 시간이었다.”

제2회 힌츠페터국제보도상 평가회의 “국제보도상으로서의 위상 확인”

국경없는기자회, 폴리처센터 등 국제 연대와 협업도 성과, 해외홍보·시상식 콘텐츠 강화는 과제

지난 10월 28일 열린 2022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시상식에 대한 조직원들의 평가다. 5·18기념재단과 한국영상기자협회는 지난 15일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에서 '2022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사업 평가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출품작의 작품성이 지난해보다 좋아졌고 ▲“국경없는기자회”, ‘미국 폴리처센터’와의 연대와 협업을 이끌어냈으며 ▲국제보도상으로서의 위상을 확인하는 행사였다고 자랑했다.

나준영 영상기자협회장은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이 언론상과 인권평화상을 결합해 세상의 변화를 고



민하는 상이라는 점을 사람들에게 알린 행사였다.”며 “수상자들도 상을 수여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지자,

현업언론인,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이 상에 대해 많이 알

리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이어 “국경없는기자회와 연이 닿아 크리스토퍼 들루아르 사무총장이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의 심사위원장을 맡았고, 미국 폴리처센터에서는 특별행사의 공동개최를 요청하는 등 국제보도상으로서의 위상을 널리 인식시켰다.”고 강조했다.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조직위원으로 참여한 김영미 분쟁전문PD는 “첫 회보다 올해 출품작의 수는 줄었지만, 작품성은 더 좋았다.”며 “프로그램을 열심히 만든 게 느껴지고 참신한 작품들이 올라왔는데, 내년에는 더 좋은 작품이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재대 5.18기념재단 국제연대 부장은 “2년밖에 안 됐지만, 모양이 갖춰지는 시기이고, 내용을 채워가는 과도기이지 않았나 한다.”며 “우리 상의 가치를 확인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고 총평했다.

해외 홍보와 준비 기간 부족, 행사 콘텐츠 부실 등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했다.

김정호 조직위원은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의 취지와 정신은 한국에서는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이를 확산시키려면 해외홍보와 해외 시민과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해외연대는 공문을 보내는 수준으로는 안 되고, 누군가 현지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전파해야 하는 만큼(내가 거주하는) 인도네시아에서 공신력을 인정받는 유튜브나 다큐 전문가, 저널리즘 관련 학과 등에 접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영미 PD도 “독재 국가에서는 이 상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작품을 출품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추적하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우리가 지원하거나, 이슈가 있

을 때 성명이나 목소리를 내는 등 특수한 홍보 전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회장은 역대 수상자들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을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힌츠페터TV’ 운영을 제안했다. 그는 “중요한 이슈가 해당 국가에서만 소비되고 국제적인 거대 미디어 채널에서 선택받지 못해 사라지는 뉴스가 많은데, 힌츠페터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채널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시도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국제 문제, 국제 뉴스에 대해 보도했던 사람들이 해설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고재대 부장은 “용량은 정해져 있는데, 많은 것들을 해야 해서 하나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야외 행사는 시민들과 공유하는 의미인데, 시상식 콘텐츠가 그에 맞지 않아 변화가 있어

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시상식을 문화예술 활동과 연계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1, 2회 시상식의 트로피를 제작한 김운성 작가는 “(예술 분야의) 작가들이 결합하면 이 상의 의미를 좀 더 조명하고 재미를 줄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며 “수상자가 선정되면 수상 작품과 내용을 검토해 새로운 예술 작품을 생산하고, 전시회를 열어 수상자가 한국에 왔을 때 볼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 회장은 “조직위원회와 심사위원회 구성, 주관 방송사 선정 등이 늦어지면서 시간이 촉박했던 만큼 내년에는 2월 출범을 목표로 행사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시상식 콘텐츠가 상의 발전에 맞춰 더욱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인정숙 기자 cat1006@naver.com

새로운 두산을 소개합니다

DOOSAN

두산의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두산만의 원천기술로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할 친환경수소에너지의 핵심, **수소연료전지**

수소/전기/열을 동시에 생산하여 전기가, 수소차의 복합충전소 및 운수 공급, 지역난방까지 한번에 해결해주는 **트라이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친환경 가스터빈을 넘어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수소터빈**

사람과 환경을 위해, 자연의 에너지를 그대로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국내 최대 **해상풍력 발전기**

세계최초로 2시간 이상 장시간 비행이 가능하여 인간의 생명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소드론**

수소의 저장과 운송을 편리하게 해주는 국내최초의 **수소액화플랜트**

IT, 모빌리티, 로봇기술 등을 활용하여 가장 효율적인 통합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는 **물류자동화시스템**

소음과 진동, 매연 없이 작업이 가능하도록 모든 부분을 완전 전동화하고, 안전을 위해 무인화한 **미래형 건설기계**

단순한 기능으로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고, 돕고, 함께 작업하는 **협동로봇** 등

친환경 에너지에서 혁신적인 기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먼 미래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두산에선 이미 현재의 비즈니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의 두산과 오늘의 두산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산과 내일의 두산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더 행복한 오늘을 위해, 더 행복한 미래를 위해 두산의 혁신은 계속될 것입니다

새로운 두산으로 출발합니다

두산의 새로운 디는 과거의 틀(Square)을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 역동적이고 민첩하며, 새로운 변화에 대해 유연한 두산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제 107회 이달의 영상기자상 심사평>

순간을 역사로 기록해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영상기자의 역할

서태경 영상기자상 심사위원장

‘대통령비속어’ 발언 보도, 보도영상의 의미와 영상기자의 역할 되돌아보게 해

뉴스 특종 단독 보도부문에 대통령 출입 영상 기자단이 출품한 “윤석열 대통령 UN 총회 참석 비속어 논란”을 수상작으로 결정했습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기껏해야 ‘이달의 기자상’을 결정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심사위원단은 그야말로 감탄을박 각각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보도 영상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한 사회적 충격이 컸던 한 것의 영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릴 수도 있었던 영상, 그냥 해프닝 정도로 지나가고자 했던 대통령실의 송출 및 보도 자체 요청에도 불구하고, 영상 기자단은 현장에서 송출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결국 MBC와 거의 모든 언론에서 대통령 육상영상은 보도 되었습니다. 공동 취재단의 촬영상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출입 영상취재단의 결단은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해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정치적인 뉴스는 언제나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에 보도지침을 내리던, 안기부가 뉴스 편집자 뒤에서 실질적으로 편집권을 좌지우지 했던 5공 시절, 그 독재시절을 겪었던 영상 기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도할 수 있는 게 영상 기자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그래서 영상 기자는 전쟁 포탄 속에도, 불 속에도 물속에도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을 이달의 기자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어떤 순간도 놓치지 않고 포착해 영상에 담고, 그 순간을 역사로 기록해, 역사적 진실을 시청자들에게 뉴스로 보내드리는 게 우리 영상 기자들 몫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안전보장에 무감한 하이해진 경찰공직가강 고발한 보도

지역뉴스 특종 단독 부문에 목포 MBC 노영일 기자가 출품한 ‘허술한 경찰 야간 당직 체계’를 수상작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경찰서에 경찰이 없었습니다.”

“무안 경찰서는 무인 경찰서인가?”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무책임한 경찰의 민낯이었습니다. 지구대나 파출소도 아니고 경찰서에 야간 당직자가 아무도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취재진이 장시간 취재를 하는 동안조차도 경찰서는 그야말로 무인지경이었습니다. 경찰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이번 취재로 지난 ‘1029이태원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새삼 되돌아보며 각성하는 나쁜지만 좋은 예입니다.

주목받지 못하던 재생에너지 시설 주변지역민들의 고통 고발

지역뉴스 탐사 기획 보도부문에 KBS 광주 이성현 기자가 출품한 ‘햇빛, 바람에 멍들다. 재생 에너지의 명암’을 수상작으로 결정했습니다.

태양광, 풍력 발전소 설치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주민들 간의 갈등을 보여 주면서 재생 에너지의 여러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 놓치지 않고 취재를 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를 영상을 통해 작란적으로 잘 표현하였기에 심사위원들

께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현대건축물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재조명

마지막으로 멀티 보도부문입니다.

외국 건축물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는 한국 현대 건축 거장들의 건축물을 발굴해서 우리의 자랑스런 현대건축문화유산을 시리즈로 제작한 ‘공간의 기록 10부작 - 힐튼호텔, 제주 포도호텔, 선유도 공원’을 출품한 KBS 최연송 기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처럼 다양한 소재가 다양한 각도로 심도 있게 제작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 107회 이달의 영상 기자상에는 출품작 수도 많았고 그내용도 뛰어난 작품들이 많아 수상작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

다. 특히 풀(pool)취재영상이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수상작으로 결정된 것은 영상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려는 노력과 언론 자유를 지키려는 의지를 높이 산 것이었다는 점 거듭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달의 영상기자상 심사위원을 대신해, 올 한해 현장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애써주시는 영상 기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이달의 영상기자상은 여건상 한정됐지만 모든 영상기자분들께 모두 ‘올해의 영상’ 기자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해도 모두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수상작은 한국영상기자협회 홈페이지(www.knews.or.kr)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지역뉴스특종단독보도부문: 허술한 경찰 야간당직 체계 연속보도>

‘무안경찰서는 무인경찰서’

목포MBC 노영일 영상기자

무안군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여성의 강도, 성폭력 사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0월 11일 새벽 무안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취재진이 찾아간 무안경찰서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출입 요청용 인터폰은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직원을 부르기 위해 입구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자, 인근

성당으로 연결됐습니다. 정문 초소는 아예 불이 꺼졌고 여러 차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간 근무 중일 경찰을 찾아 청사 안으로 들어갔지만 단 한 명의 경찰관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리모델링공사 중인 경찰서 건물은 1층 출입구를 비롯해 내부 사무실까지도 개방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상황실, 기계실, 유치장 등 무안경찰서 내부를 살펴보는 동안 제지하는 경찰관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역뉴스탐사기획보도부문: 햇빛 바람에 멍들다>

도시사람들은 모르는 재생에너지 속 농어촌사람들의 눈물

KBS광주 이성현 영상기자

사람들이 사라지는 농어촌에 대치는 재생에너지 시설

정부와 지자체는 재생에너지가 낙후된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 청사진을 그려왔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다. 2019년 농지법 개정으로 절대농지인 간척지마저 하나둘 태양광 사업지로 변모했고, 10년 가까이 이어진 가격 폭락 여파로 국내 천일염 주산지인 전남 신안과 영광의 대규모 염전 역시 태양광 사업의 표적이 되어버렸다.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사업자와 땅 주인

의 계약 앞에 수십 년 농촌을 지켜온 입자농이며 천일염 생산자들은 생계터전을 잃고 그들의 삶

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이제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는 해상풍력 역시, 항균어장을 지켜온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는 멍들어가고 있다. 주민들은 찬반으로 입장이 갈리고, 보상을 둘러싼 갈등까지 더해지며 이전 이웃이 아닌 원수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농어촌의 눈물을 타고 태양광과 풍력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는 또다시 수도권과 대도시로 향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로 뒤덮인 간척지며 염전, 해상풍력 공사가 한창인 바닷가, 10년 뒤 이곳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일터가 사라진 농어촌에 누가 들어와 살겠냐고, 나이 든 어민들을 돌아가시면 마을에는 태양광 패널만 덩그러니 남아 있을 거라고.’. 지금처럼 사업자 중심의 입

오전에 경찰서를 다시 찾아 새벽에 있었던 일에 대해 질문을 하니 경찰서 관계자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사무실 내부에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답변을 이어 나갔습니다.

경찰서측은 새벽에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고, 입구에 부착된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본 후에야,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취재를 간 무안경찰서 앞 알림 현황판의 글자들이 햇빛에 반짝거리면서 ‘무안경찰서’의 간판은 ‘무인경찰서’처럼 보였고, 현실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기사의 제목이 되

었습니다.

보도 다음날부터 많은 언론사들이 우리 보도와 경찰의 대응에 대해 인용 보도 하였고, 인터넷에서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취재 이후 전남지역 21개 경찰서 중 보안이 허술한 6곳의 경찰서가 적발되어 시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 전남경찰청은 경찰관의 ‘근무 태만’ 행위를 방지할 대책을 신설했습니다.

입사 3개월차 신입 영상기자를 위해 이번 취재와 편집과정에서 여러 조언과 도움을 주신 선배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들은 질문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긍정적인 내용이나, 부정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었다. 대답하기 난처했다.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은 긍정하면서도 농어촌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은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였기 때문이다.

여러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재생에너지 자체를 반대하진 않았다. ‘기후위기’라는 현실과 ‘온실가스 감축’이란 시대적 과제 앞에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단지, 농어촌 희생만을 강요하는 지금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할 뿐이었다. 누군가는 고통 받고 있고 누군가는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지만 내포한 많은 대도시의 사람들은 내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관심하다. 지금부터라도 ‘그런 에너지 전환의 과정은 당신들의 문제야’라고 할 게 아니라 공존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참여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좋겠다.

<멀티보도부문: DEEP 공간의 기록>

크리에이터 영상기자는 시대의 요구

KBS 최연송 영상기자

- 자랑스런 한국근현대건축유산의 재조명

건축이 우리 삶에 차지하는 비중만큼 실제로 우리나라 현대건축에 대한 평가는 높지 않습니다. 김중업, 김수근 같은 걸출한 대가들이 80년대에 타계한 이후 그 뒤를 이을만한 스타건축가가 나오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히려 우리

나라 전역에 작품을 뿌리고 있는 일본 건축가 안도 타다오나 동대문 DDP의 자하 하디드 등 외국 건축가들의 위상이 더 높아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자랑할 만한 근현대 건축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사전 준비에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건축학 개론부터 시작해서 차근차

근 공부해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안타까운 사실이 건축학계도 우리나라 건축가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건축사도 대학의 건축학과에서 비중 있게 가르치지 않고 있고, 우리 건축사를 공부하는 것이 교수가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한양대 건축학부 정인하 교수는 꾸준히 연구를 축적해 오셨고 연구

서도 여러 차례 출판하셔서 제작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엄덕근 건축가의 세종문화회관을 필두로 다양한 건축 작품들을 책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가서 마주하니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20세기의 건축사조인 모더니즘에 한국적 전통성을 결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던 우리 건축가들의 열정이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건축으로 구현되어있었습니다. 건축가는 죽은 뒤에 탁월 평가를 두려워해야 한다면 김중업 건축가의 주한 프랑스 대사관, 이희대 건축가의 절두산 성당으로 이어지는 길작들은 요즘 건축들이 놓치고 있는 예술로서의 건축, 예술가로서

의 건축가가 어떤 것인지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멸실될 위기에 처한 김중성 건축가의 명작 힐튼호텔, 업 사이클 건축의 효시인 선유도 공원, 정기용 건축가의 인간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녹아있는 등나무운동장. 건축가들의 혼신의 노력이 건축물로 구체화되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생존해 계신 김중성, 김석재, 우규승, 조성룡 건축가와 정영선 조정가와외 인터뷰는 가슴 뭉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분들과의 인터뷰는 토치하나 하루 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과 자연, 그것을 담아내는 건축에 대한 성찰로 가득했습니다. 분명 우리에게도 세계에 자랑할 만한 걸작과

대가들이 있었습니다.

-KBS아카이브에서 찾아낸 보도영상의 가치

두 번째, 나만의 콘텐츠.이 기획을 저도 사전에 준비하고 있었지만 당시 국장인 진만용 선배의 의지가 없었다면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뉴스영상의 1차 생산자에서 아카이브까지 활용한 입체적 크리에이터로 변신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한 결과가 이번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KBS영상 아카이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장들을 기록한 회귀영상들을 찾아 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건축사에 큰 비중이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활영업의가 진행되었고, 생전 처음 해보는 기획에, 낯선 인터뷰에,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동안의 취재경험으로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뉴스클럽 생산자로서의 영상기자의 역할은 우리 직업의 본질이고 중요하지만 크리에이터로서의 역할도 점점 커질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하면 도태될 것입니다. 이미 영상기자는 현시대가 요구하는 올라운드 콘텐츠 제작자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Host city for ITS 2026
GANGNEUNG



강릉시 2026 ITS 세계총회
성공개최를 응원합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LG유플러스,
교통 시스템을 혁신하다

LG유플러스가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강릉에 안전하고 편리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기반의 미래 교통 선도 도시를 구현합니다

스마트 교차로

교차로 교통량 및 사고 발생을 파악하고
회전교차로 안전지원시스템 구축



스마트 횡단보도

디지털 영상 인식 기반 시스템으로
횡단보도 신호 연장과 경고음 제어를 통해
안전한 횡단 구현



스마트 주차장

VMS를 통해 주차 가능 위치와
잔여 주차 공간 수를 확인



<10.29참사 취재영상기자 간담회>

“참사 당시로 돌아간다면 다시 현장취재 할 수 있을지 의문”...현장기자들, 트라우마 ‘심각’

협회 차원의 구체적인 참사 취재 가이드라인 개정 · 취재트라우마 극복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두 달이 되어간다. 젊은층이 주로 찾는 서울 한복판에서 300명이 넘는 인명 사상자가 나왔지만,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2차 피해 · 재발방지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은 고등학생이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서 현장 상황을 취재 · 보도한 기자들에 대해서도 심리적 방역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그날,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은 당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한국영상기자협회(회장 나준영)는 이태원 현장을 취재한 기자들과 세월호 참사 취재진 등 영상기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취재 · 보도 간담회는 지난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 영상기자협회회의실에서 열렸다.

간담회는 나준영 영상기자협회장이 진행을 맡았으며 MBN 김현석 기자, JTBC 박대권 · 이학진 기자, SBS 이상학 기자, MBC 권혁용 기자가 참석했다. (편집자주)

“시신 취재 경쟁과 취재에 회의감 커” VS “충실한 영상취재, 진실규명의퍼즐”

나준영 :오늘은 10.29 참사에 대해 우리가 ‘세월호’ 보도 이후 개선하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부터 현장 기자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고 한다. 먼저 이번 참사를 취재 · 보도하면서 경험하거나 느낀 것을 총평해달라.

박대권 :나는 시신을 골목 옆에 옮겨놓은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됐다. 모든 언론사 기자들이 시신을 찍겠다고 현장에 진을 치고 있는 걸 보면서 회의감이 들었다. 다른 현장도 충분했는데, 왜 시신 취재에 목을 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고민하다 다른 골목으로 들어가서 취재했다.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충분히 취재거리가 됐다.그런데도 모든 기자들이 상황실 골목에 몰려있는 걸 보면서 우리 언론이 세월호 이후 바뀌진 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김현석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윤리 측면에서 생각해볼 문제와, 우리는 역사를 기록해야 할 사람으로서, 혹은 이런 자료가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일단 찍어놓고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딜레마가 항상 충돌하는 것 같다.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에 ‘재난에서 사망한 희생자의 시신을 촬영해도 되는가? 희생자의 연령, 성별 등에 따라 시신 촬영에 제한을 둘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나온다.이 질문의 답변은 ‘공적 관심사로서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기 명백한 경우 시신 촬영을 할 수 있다. 영상촬영은 사건의 뉴스 현장 기록이자 그 자체가 역사 기록물이기 때문이다.’이다.희생자에 대한 존엄성도 중요하네 영상 사관으로서의 의무감이 충돌하면 딜레마가 심하다.현장이 곧 없어질 수도 있다는 압박感까지 오면 현장에서 기자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다.역사적 기록물도 좋지만 언론사들이 이걸 담지 말자고 서로 약속한다면 윤리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고, 희생자에 대해서도 예의를 갖추 수 있지 않을까.

이상학 :입사한 지 6개월 차여서 야근자네 명 중 배려를 받고 제일 늦게 현장에 나갔다. 그래서 시신은 거의 보지는 못해서 그것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는 어쨌든 기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해당 영상을) 찰지 말지 결정하는 두 번째 단계가 있으니 일단 찍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우리가 1인미디어나 유튜브 버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우리는 (촬영된 영상을) 한 번 거를 수 있다는 것이다. SBS는 조금 늦긴 했어도 중간부터 불러 처리를 했고, 앵커 멘트로 ‘우리는 과하게 보이는 영상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밝히는 과정이 있어서 미디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권혁용 :과거 캄보디아 비행기 추락 사고와 세월호 취재를 하면서 똑같은 자리에서 왜 열 명의 기자가 모두 한 방향으로 기록을 해야 하느냐 하는 점을 나도 고민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현장에서 각자가 한 기록이 다 같지 않더라. 수사기관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세월호 때도 영상기자들이 영상으로 기록해 놓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해 줬다.그런데 우리가 그 현장에서 ‘내가 왜 똑같은 상황을 많은 동료들과 똑같이 다 기록해야 하느냐’는 자괴감은 안 가져도 될 것 같다.

안타까운 점은 현장에서 느끼는 순간의 자괴감, 현장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시점이 지나서 그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그런 것에 대한 사전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현장을 기록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직업적인 행위를 하면서 같은 직군의 동료들이 받게 될 충격에 대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어떻게든 충격을 적게 받아야 하고, 받았다면 치유의 과정이 무엇이었을까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이학진 :무엇을 취재해야 할지, 취재하지 말아야 할지 보다 왜 취재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 답을 내리기가 조금 더 쉽지 않을 거 생각한다. ‘시신이기 때문에 찍지 말아야 한다’, ‘고인에 대한 인도적인 마음으로 이 시신은 찍지 말아야겠다’라고 판단하기에 앞서 왜 찍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찍은 그림이 나중에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피사체가 될 대상에 대해 ‘시신은 찍지 말아야 해’, ‘이거는 찍어도 돼’라고 규정하기엔 우리 일이 맞지 않다고 본다.박 기자가 예기한 회의감은 시신 취재가 아니라 목적 없이 다들 경쟁적으로 ‘네가 찍으니 나도 찍어야 돼’라는 모습에서 온 거라고 생각한다.옆에서 카메라 셔터를 누르니 나도 누르고 옆 사람이 한발짝 앞으로 가면 나도 한발짝 앞으로 가는,그런 무질서한 모습에서 오는 회의감이지,단지 내가 시신을 찍고 있기 때문에 드는 회의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내가 어떤 가치를 위해서 이걸 취재해야하는지를 생각하면, 현장에서 기자로서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찍지 말아야 할것은 없을 것이다.

박대권 :현장에서 쓸데없는 경쟁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 게 맞다.현장에서 진을 치고 경찰과 싸우면서 자리를 지키고 찍으려고 했으니까.상황이 한창 진행될 당시 사람들이 찍어서 올린 SNS 영상을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언론사영상이(유튜브나 SNS 등에 올라오는) 영상과 다르다는 걸 과연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윤구차랑에 시신 실는 걸 하나라도 더 찍겠다고 이등바등하는 걸 보면서, 세월호 때 ‘기레기’라는 단어가 겹쳐졌다.

권혁용 :기록은 우리 일이지만, 보도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엔 우리가 현장에 없기 때문에 일반인의 영상을 쓰기도 한다.우리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가장 객관적으로 짚을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들이다.우리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도착하지만, 우리의 입체적인 기록이 전문가나 진실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사건을 훨씬 명확하게 볼 수 있는 퍼즐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한다.우리가 더 훈련되었기 때문에 우리 기록이 사건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진실을 밝히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

취재 트라우마 극복 위한 회사· 동료들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직원인 기자들뿐만 아니라 오디오맨, 운전기사 AD 등 현장 스태프까지 모두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

김현석 :현장에 있었던 기자와 그렇지 않은 기자들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다.선배들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이렇게 입장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마 트라우마 때문인 것 같다.내가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시 할 수 있을까, 만약 내가 트라우마 치료를 제대로 받았다면 선배들 말씀이 맞다고,그래도 기록을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12월 12일 한국영상기자협회회의실에서 열린 10.29참사 취재영상기자 간담회

것 같다.그런데 지금 당장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걸 보면 나도 모르게 아직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것 같다.

이상학 :내가 갔을 때는 텅 빈 골목, 유실물이 나뉘는 장면이었는데도 충격적으로 다가왔다.입체적으로 표현한다고는 하지만 현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을 하다 보니,미처 유실물센터로 보내지지 않은 신발 한 짝 같은 걸 찍으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다.현장은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어 접근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서 그걸 막는 경찰과의 실랑이도 당혹스러웠던 기억으로 남아있다.

나준영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이전과는 달라졌다.각 사별로 어떤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나?

김현석 :얼마 전 회사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그때 각사는 어떻게 트라우마와 관련해 지원했는지 알아봤는데,직접 기관을 지정해 주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직접 회사로 방문해 시간대를 정해 상담 선생님이 오셔서 상담해주기도 했다.모든 언론사가 비용 지원을 한다면, 영상기자협회 차원에서 각 회사로 왕진처럼 심리상담가를 보내서 협회원들을 치료할 수 있게 하고,비용은 회사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도와주면 어떨까.회

사마다 조건이 다르다보니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

나준영 :협회차원의 트라우마센터 운영을 알아봤는데, 쉽지 않았다.사별로 지원제도가 차등적인데,앞으로 협회에서도 협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고민하겠다.내년에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재개정 작업을 할 텐데, 트라우마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기자들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회사나 조직이 도움을 주는 내용을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하려고 한다.

김현석 :트라우마가 전혀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트라우마를 겪을 수밖에 없는 현장 기자들을 같은 공간에 또 다시 취재하게 하는 것도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당일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협회 차원에서 데스크급인 시니어 기자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을 현장과 분리시킬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나준영 :참사를 경험했거나 고통받은 기자에 대해서는 동일 현장, 동일 사건 관련 취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넣겠다.특히 참사를 현장에



서 직접 취재한 언론인의 경우 차별화된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

권혁용 :직업적으로 트라우마 상황을 겪지 않도록 하는 원칙에 반하는 게 우리의 일이다.현장을 정확하게 봐야 하고, 판단해서 기록해야 하고, 포커싱해서 취재해야 한다.전체를 회피하고 싶어도 전체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 순간 각인 효과가 어마어마하다.

예전에 참사 현장에 갔을 때 나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했다.많이 훼손된 희생자를 취재하고 시신 구호도 같이 했는데,당시엔 팬츠에서 현장에서 충격을 받았다고 느끼지 않았다.그런데 한두 달 지났을 때 특정 화면이 계속 꿈에 나타나면서 어느 순간 나를 제어하기 힘들었다.그 순간은 기록하느라 바빠서 내가 어느 부분에 테피지를 입었는지 알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 한꺼번에 확 밀려오더라.이를 줄이기 위해 취재를 다녀오자마자 심리상담을 받아야 한다.회사에서는 ‘필요하면’ 상담을 받으라고 하는데, 당장은 팬츠더라도(재난이나 참사 현장에 다녀왔다면) 의무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영상기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현장에 가는

오디오맨, 운전기사 등도 모두(트라우마 치료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최근 살인사건 현장에 가서 떨어진 혈흔을 보고 그 날부터 잠이 안 온다.며칠 뒤부터 숨을 쉬는 게 너무 힘들다.잠을 못 이루겠다고 하더니 며칠 있다 그만둔 오디오맨이 있었다.협회가 각사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스태프까지 종합적으로 배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박대권 :현장에서 트라우마가 없었다고 마음을 다잡았다.일주일 정도 있다가 분향소 일정이 있어 스케치를 하러 갔는데, 피해자 부모님이 쓴 편지를 보는 순간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더라.숨을 못 쉬고 할렙거리니까 함께 간 오디오맨이 팬츠나고 물어 보기도 했는데, 생각해 보니 오디오맨들에게는 (이런 현장에 갈 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라고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오디오맨 중에 실제로 트라우마가 세계 와서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간 친구도 있었는데,막상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챙겨주지 못했다.내가 현장에서 느껴보니 트라우마가 강하게 오더라.회사나 협회가 영상기자 뿐만 아니라 스태프들도 교육받고 준비하고,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

김현석 :트라우마가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몇 달, 몇 년 후에도 올 수 있다는 걸 모두가 머리로는 알고 있다.그런데 막상 경험해 보니 생각했던 것과 정말 달랐다.이런 부분을 협회원들이 모두 다 알았으면 한다.

나준영 :때울리가 힘들겠지만,이번에는 참사 당시 이태원이 왜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지, 당시 현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쉽게도 의문이 들었던 점, 문제라고 생각한 것들이 있다면 얘기해 달라.

참사 현장 있어야 할 경찰 ‘높은분’ 보좌근로자 파출소에 모여...참사특보 추가된 내용 없는 빈북 보도 취재해야 할 인력들 생존계에도 소모도 ‘문제’

김현석 :참사가 있기 2주 전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취재했다.부감 취재를 하려고 이태원파출소 옥상에 올라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질서 정연하게 아무 문제없이 끝났다.29일에 그때보다 인원이 조금 더 많았던 건데,어떻게 이런 참사가 일어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참사 당일 12시 반쯤 도착해 후배 기자 두 명이 (해밀톤)호텔 앞과 옆 골목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포지션을 나누기로 했다.나는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파출소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파출소 앞으로 갔는데,파출소 옥상을 보니 김광호 서울정장도 있고 용산시장도 있어서 모습을 담았다.그런데 그들을 보좌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인력들이 있더라.그 사람들이 현장에 배치해서 일을 해도 모자란데,그들을 보좌하기 위해 파출소 1,2층에 많은 인력이 배치된 것을 보면서 정말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박대권 :방송사들이 새벽에 부랴부랴 특보로 편성해서 라이브를 했다.그런데 상 황분부도 막 차려졌을 때,소방이든 경찰이든 어디 쪽에 취재를 해도 수치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다.의미있는 수치가 나오거나 방송 전 보도에 비해 업데이트되는 내용도 없고,토요일 자정이라(취재할 수 있는)인원도 제한적인데,30분 단위로 계속 현장을 돌리면서 인력 소모를 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현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 때문에 상투적으로 현장을 돌리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한 팀을 라이브로 연결하려고 4-5명이 투입됐는데,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현장을 쫓고 더 취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김현석 :우리는 정반대의 고민을 했다.참사가 일어났는데도 특보를 전혀 편성을 안 했다.도대체 현장에 라이브유(LiveU)와 티비유(TVU) 장비와 들고 간 건지 모르겠다.이런 참사가 있다는 걸 알림으로써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분산시키고,그쪽으로 오지 못하게 막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한다.특보를 편성하지 않아 내부적으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많았는데,다른 방송사에는 이런 고민이 있는지 몰랐다.

이상학 :첫날 목격자 인터뷰가 많이 부족했다는 피드백이 나오고 나서 큐시트를 다시 확인해 보니, 30분마다 (라이브를)물렸더라.유실물센터,서울대병원,종합상황실 앞에서 각각 하나씩 물렸는데,구체적인 수치가 변하거나 하면 특보를 30분마다 물려도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중계를 돌리더라도 전략적으로 충분한 취재가 이뤄진

다음에 했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보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나준영 :기자들이 현장에서 취재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초기 상황에서 커버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초 자료만 가지고 중계를 반복했다는 얘긴 것 같다.특보 상황에서는 중계를 전담하는 팀이 별도로 나오고,영상기자들은 현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들이 중계를 하다 보니 답답했던 것 같다.

출처불명의 가짜뉴스들 참사현장의 혼란을 줄이려는 취재진의 자발적 노력 아쉽

김현석 :날이 밝아 윤석열 대통령이 왔다.우리와 YTN은 통제선 밖에서 취재했는데, 윤 대통령이 온다는 사실이 대통령실 폴란드에 통보가 안 된 건지 현장에는(폴란드 기자 없이)전속과 우리만 불어서 취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그런데 어느 순간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님 여기까지만..’이라고 제지했다.다른 상황도 아니고,참사 상황에서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고 싶고,폴란드와 마찰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궁금한데,취재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계속 내비치니까 언론 탄압 아닌가,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탄압 아닌가 하는 생각에 상당히 유감이었다.

후배 기자는 골목 앞에서 취재할 때 포토라인 얘기를 하더라.한 컷 더 찍겠다고 경찰과 싸우는 기자도 있었고,일반인들이 기자인 착하네 끼어드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현장이 골목이다 보니 소방 측에서 브리핑 장소를 만들었다 없앴다 하는 과정에서 포토라인이 들락날락하기도 했다.그 과정에서 앰블런스 진입로가 바뀌기도 했는데,브리핑도 중요하지만 구조가 먼저니 그런 부분을 부드럽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현장의 기자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어 포토라인이 흔들렸다고 들었는데,참사가 있을 때 현장에서 선임들이 빠르게 만나 정리를 하면 좋겠는데,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협회에서 그 역할을 해 줄 수는 않을까.

나준영 :정상적으로 상황이 돌아갈 때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이번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현장 상황을 모르고 정보가 없어 개입하기가 어렵다.그럴 때문에 각협회나 단체가 만든 보도준칙이나 가이드라인의 운영 주체는 더욱 기자 자신 이 되어야 한다.기자가 주도성을 갖고 현장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주체가 되자는 게 우리 가이드라인의 모토이기도 하다.

권혁용 :용산사에서 마약 단속한다고 하루 전날 취재 의뢰가 왔다.참사 당일 취재팀이 나간 것으로 아는데,그쪽 팀도 현장 취재를 같이 했는지 궁금하다.

이상학 :아근자가 마약 단속 취재를 나갔는데 취재가 쉽지 않아서 이태원의 헬리콥터 분위기라도 스케치하려고 갔다가 분위기가 심상치않음을 느끼고 데스크에게 연락해 아근자가 추가됐다.

김현석 :MBN은 3년차 기자가 마약 단속,신입 기자는 이태원 인파 취재를 갔다.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벌어지자 두 기자가 연락을 해 신입기자는 현장에서 분리시켜 부감 취재를 시키고,3년차 기자가 현장으로 달려갔다. 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인공호흡을 하는데도 옆에선 춤을 추고 있다.사람이 많고 시끄러워서 바로 옆에서 일어난 상황 파악도 하기 쉽지 않았겠더라.

현장에서 빠르게 퍼지는 가짜 뉴스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12시 30분쯤 호텔 건너편에서 환자들을 취재하는데,누군가 ‘이거 압사 아니야.마약이야’.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고 지나갔다.경찰도 마약 연관성을 수사한다고 하니 취재단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여기저기서 가짜뉴스가 퍼지다 보니 취재 방향을 틀어야 하나 혼란스러웠다.

과거 참사보도 문제점 개선하려는 기자 개인 · 방송사들의 고민과 노력 엿보여 나준영 :참사 보도가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얘기해 보자.

권혁용 :우리의 노력과 관계없이 영상이 이미 재단되어 보여 지는 게 속상하다.영상 기자들은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아닌 걸 그런 것처럼 해석의 여지를 두지 않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이 있는데,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각자 다르게 느끼고 있다.

(5면에계속)

제108회 이달의 영상기자상 작품 공모

한국영상기자협회 회원사를 통하여 방송된 뉴스와 보도프로그램 중에서 투철한 기자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보도영상 발전에 공헌한 기사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한 컷 한 컷의 영상 속에 오늘을 역사로 담고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회원 여러분의 기자정신과 영상전문가로서의 꿈과 열정이 담긴 보도영상작품을 <이달의 영상기자상>에 공모해 주세요.

- 공모시상부분(정회원예 포함)
- ▲뉴스특종단독부분 ▲지역뉴스특종단독부분 ▲뉴스탐사기획보도부분 ▲지역뉴스탐사기획보도부분 ▲보도특집다큐부분
- ▲멀티미디어부분 ▲‘새로운시선’ 부문 ▲인권·노동보도부분 ▲국제·통일보도부분 ▲환경보도부분 ▲문화·스포츠보도부분
- 출품대상
- 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원사를 통하여 방송된 보도영상물 또는 인터넷으로 송출된 작품
- 제출기간
- 2022년 1월 1일(일) ~ 1월 16일(월) 오후 6시까지(출품기간 및 시간 엄수)
- 심사 : 2022년 1월 27일 (금) 오후 4시
- 심사 결과 발표 : 2022년 1월 27일 (금) 오후 9시
- 제출서류 및 방법, 유의사항은 한국영상기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www.tvnews.or.kr)
- 문의 : 한국영상기자협회 사무처(02)3219-6476

(4면에 이어서)
나준영 :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려고 해도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답답하다는 의미인 것 같다.
박대권 : 영상이 넘쳐나다 보니 영상을 해석하는 기준이랄까, 관점이 없어진 것 같다. 영상기자가 찍은 영상과 유튜브의 영상 사이에 차이점을 못 느끼는 것 같다. 우리 입장에서선 적어야 할 것과 찍지 말아야 할 것, 특히 찍지만 보도하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는데, 그 사람들은 찍은 것들을 모두 자료화해 돈벌이에 이용하다 보니 일반인들은 어차피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받아들이는 것 같다.
김현석 : 유튜브가 규제 없어 너무 낯선 영상을 내보내다 보니, 사람들이 그것만이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확장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고, 특히 유튜브 알고리즘은 내가 하나의 영상을 보면 그쪽으로만 영상이 뜨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알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국민들은 물론 우리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았으면 한다.
이성학 : 유튜브나 SNS에 퍼진 블러 처리 안 된 원본 영상들은 우리 손을 떠났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가리는 걸 올리지만 사람들은 가리지 않은 걸 보고 싶어 한다. 그럼에도 우린 정도를 지켰다는 걸 알릴 필요가 있다.
나준영 : 언론은 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표준으로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언론으로서 윤리적이고 저널리즘에 입각한 표준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이태원 참사 영상 보도 관련해선 각 사별로 어떤 논의가 있었나.
권혁용 : 피해자와 가족들, 혹은 심심미약자가 봤을 때 그 현장을 떠올리게 하는 영상은 안 된다는 것을



▲이태원역 1번 출구앞에놓인 추모 화환들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편집 가이드도 계속 주고 있다. 그럼에도 충분히 않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한 명 한 명의 스토리가 이 사고의 진실을 가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이미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있고, 자극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더 노력하고 있다.
박대권 : 포커스를 맞춰서 찍느냐 마느냐의 딜레마가 있었고, 일부러 포커스를 다른 데다 맞추는 방법을 쓰기도 했다. 현장에서 고민하고 찍었지만 약간의 가공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는데, 라이브를 할 때 사무실에서 '들어왔으니 빨리 쓰자.'라고 판단해 블러 처리 없이 써 버리면 허탈할 것 같다.
권혁용 :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는 소명과, 나중에 이 사건을 입체적으로 구성할 때 선의의 의도로 포커스를 맞지 않게 찍어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 현장 장비가 개인이 나가도 라이브가 가능한 추세이다 보니,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다. 1보할 때는 몇 도 이상의 블러를 준다는 식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김현석 : 걸어 찍기도 하고, 포커스링 올려서 일부러 흐릿기도 한다. 역사의 기록물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엔 현장기자가 게이트키퍼를 해야 한다고 본다. 클로즈업 샷의 경우 일부만 클로즈업 하는 게 가능하지만 풀샷은 안되니까 매크로렌즈를 올려서 촬영하고 있다. 참사 당시인 텍스트를 정리할 때 무엇을 촬영했는지에 앞서 중요 표시를 하고 '블러필'을 가장 먼저 적었고, 내부에서도 편집부에 항상 신신당부하고 있다.
나준영 : 참사 보도에 있어 과거에 비해 개선된 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권혁용 : 전체적인 보도의 내용과 현장 참여자에 대한 처우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속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생각해볼 부분이 많다. 과거보다 지금이 나아졌지만 사회적인 전체 흐름이 나아진 만큼 좋아졌는가, 회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과정에서 협회는 구성원들의 요구에 얼마나 부응할 것인가 등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이어져나갈 것 같다.
이혁진 : 많은 사람들이 암사당하는 장면을 어떤 언론사에서도 쓰지 않았고, 우리 회사에서도 암사 순간의 그림은 쓰지 않는다는 편집회의

결과가 단체 공지로 나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에 함몰되다 보니 너무 조심스럽게 다가가간 것 같다는 느낌이 있다. 논란의 여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림 영역만 놓고 보면 처음부터 재단이 가해져서 참사의 진실을 제대로 알리기엔 너무 부족했다.
박대권 : 현장에서 두려웠다. 찍는 거에 대한 사명감과 있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날 밤 야간 데스크와 계속 소통하는 데, '아닌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해서 내 판단으로 내가 해야 할 역할을 했는데, 내가 스스로를 너무 재단했다 싶기도 하다. 다만, 우리가 노력하고 자중하고 최대한 열심히 했다는 걸 시민들이 이해해 준다면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김현석 : 수습 때 선배로부터 'REC 버튼을 누르는 건 쉽다. 그런데 그걸 누르지 않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현장에서 망설였던 이유는 우리는 항상 시민들의 눈이라고 여겨왔는데, 내가 보는 장면을 시청자가 그대로 본다면 너무 끔찍하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다.
이성학 : 유가족 취재 직전에 보도국 지침이 내려왔다. 최대한 취재자가 먼저 접촉을 해서 허락을 받고 카메라를 켜야 한다든가, 일발의 거부 표시 있으면 아예 시도하지 말라 같은 내용이었다. 선배로부터 세월호 때 많은 지탄을 받아서 이번에는 노력을 보겠다는 점과, 이번엔 지적받은 것들을 개선해서 앞으로 잘 만들면 되지 않을까.
권혁용 : 옳다. 그러다를 떠나 기자들이 맹목적으로 취재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다. 현장에서 기자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과거보다 나아지고 있다고 본다.
정리=인경숙 기자 cat1006@naver.com

[인터뷰] 박동혁 MBC 디지털뉴스룸 차장 · 단국대 겸임교수

“영상기자, ‘확장된 기억’으로 가장 크게 트라우마 겪을 수 있어… 저연차 기자들에 대한 교육 · 관심 필요”

“취재현장 기억에 빠져들지 말고 긍정적 회상해야 트라우마 극복에 도움”

10.29 이태원 참사로 언론인이 취재 현장에서 겪는 트라우마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특히 영상기자는 뉴스 제작 현장에서 대상을 클로즈업하는 등 ‘확장된 기억’으로 언론종사가 가운데 가장 크게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취재 과정에서 직접 트라우마를 겪은 뒤 언론인 트라우마 연구를 해 왔으며, 지난 5월 출범한 언론인트라우마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동혁 MBC 디지털뉴스룸 차장(단국대 겸임교수)을 이메일로 인터뷰했다.



박동혁 MBC 영상기자

적, 청각적 정보를 동시에 취재해야 합니다. 취재기자도 상황을 눈과 귀로 관찰하고 기억하겠지만, 영상기자는 편집을 고려하고 취재해야 하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에서 다양한 영상 사이즈로 현장을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재난현장에 있는 취재기자는 자신의 시야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기억하겠지만 영상기자는 피해자의 얼굴, 상처 등을 클로즈업 화면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그 화면이 상황 전체의 기억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확장된 기억’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상기자는 언론종사자 중 가장 크게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습니다.

- 언론인 트라우마에 관심을 갖고 심입 방송기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인 트라우마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입사 이후 2,3년쯤 지났을 때부터 입사 전에 겪지 못했던 정신적, 신체적 경험을 했습니다. 사회나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고 느꼈고, 현장이나 뉴스제작 과정에서 목격한 사건 현장이나 특정 상황이 꿈에 자주 등장하거나, 깨어 있을 때도 자주 생각났습니다. 당시엔 나에게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돌아볼 겨를 없이 하루하루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2007년 12월엔 옆자리 동기가 출장 중 순직했고, 이후 증상들이 더 심해졌습니다. 2010년부터 내가 겪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회자분 하위개념 중 하나인 ‘사회적 신뢰’에서 신뢰 저하에 대한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2015년엔 언론인 트라우마에 대해 연구하고 교육하는 콜롬비아 대학 부설 ‘다트 센터(DART Center)’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해 아시아 지역 언론인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펠로십 프로그램 참가 중 제가 겪어왔던 대부분 경험들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증상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 트라우마와 관련해 기존의 가이드라인 가운데 기자들이 주목해야 할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올해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언론인이 협업으로 만든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한 번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건사고, 재난 취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사회팀 후배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저연차 후배는 하루하루 일정에 쫓겨 자신을 살펴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인데, 보직 부장이나 데스크, 캡 역할을 하는 선배들이 먼저 살펴보고 후배들에게 소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저널리즘과 트라우마’라는 교육용 동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0QjNuBrTm-w)을 세월호 유가족, 심리 전문가, 현직 기자들과 만들었고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사건 취재를 가는 후배들에게 동영상 링크를 보내주면 이동하는 중간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 부족과 일에 쫓겨 취재원과 스스로에게 큰 상처가 될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작지만 큰 시도가 될 것 같습니다.

-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여성기자협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직 기자 10명 중 8명은 기자로 근무하는 동안 심리적 트라우마를 느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기자들은 어떤 상황에서 트라우마를 느낄 수 있나?

PTSD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 사건인 사건사고, 재난, 각종 폭력, 전쟁 등의 상황을 기자들은 업무 과정에서 모두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팀·사건팀 기자들의 경우 일상적으로 트라우마 현장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현장에 동행하는 오디오맨이나 운전기사 그리고 헬기 조종사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2015년 이후 주변 동료들의 트라우마 현장 경험과 증상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보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PTSD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 10.29이태원참사 이후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조사된 언론인 트라우마 결과를 살펴보면 영상기자, 사진기자, 취재기자 집단 중 영상기자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사진기자는 시각적 정보에 보다 집중하는 반면 영상기자는 시각

- 트라우마 상황인데도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기자들도 있을 텐데, 전문가를 찾기 전에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자기진단 방법이 있을까요?

증상은 여러 가지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꿈이나 문득 생각남, 가슴 떨림, 사회나 사람에 대한 신뢰 저하, 분노, 우울 등 다양합니다. 사건사고나 재난 취재 후 전과 같지 않은 신체적, 정신적 증상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증상이 현장 경험 이후 며칠, 몇 달 혹은 몇 년 뒤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해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심리 전문가들이 취재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트 센터’에서는 업무에 대한 이해가 높은 동료들끼리 서로 돕는 ‘피어 서포트(Peer Support · 동료지원)’ 방법도 권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동료나 의지할 수 있는 선배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동료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 하나가 “우리 땀 그런 거 다 참고 지냈어”, “시간 지나면 다 잊힐 거야” 등 최소한의 공감도 못해주는 모습입니다.

- 트라우마를 겪는 기자들을 위해 언론사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이뤄져야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언론인트라우마위원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선 언론사 규모나 관심에 따라 1차적인 지원 형태와 범위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고 겪고 있다면 최소한의 지원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제정 중인 가이드라인도 언론현업인들이 자율적으로 동의하고 지켜야 할 부분이니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보직자와 데스크, 캡 역할을 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교육받고, 이후 저연차 후배들까지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 외상사건 취재로 인한 트라우마 뿐만 아니라 악성댓글,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하게 정신적 고통의 범위가 넓어지고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상설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태원참사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영상기자들을 포함한 모든 기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하는 거의 모든 취재는, 매체 이용자 또는 국민들의 삶에 장 · 단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충직한 기억에 너무 빠져들지 말고, 내가 이 행위를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했는가 긍정적으로 회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잔혹한 현장의 세세한 영상은 보도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이런 현장에서는 기계적인 클로즈업 영상 기록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언론인들의 취재관을 마초적 · 객관주의적 · 취재 우선주의 등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유형 중 ‘취재 우선’ 태도를 갖는 기자들이 트라우마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재 우선적 태도는 오랜 시간 언론인으로 근무한 이후 본인의 스타일로 형성되었을 수도 있지만, 저연차 기자들의 경우 주어진 취재 지시를 일단 해내야 한다는 부담에서 단기적으로 형성된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트라우마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사 후 5년이 되지 않은 젊은 기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경숙 기자 cat1006@naver.com

건강은 국가건강검진으로 시작됩니다

매년 30%의 질병 조기발견

성·연령별 맞춤형 검진
일반검진(본인부담금 없음)
암검진(일부 본인부담금(10%) 있음)

10년간 건강흐름을 한눈에
The 건강보험 앱(APP)

상담 및 문의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2022 신입 주니어 영상기자 연수 후기

소중한 인연들과의 2박 3일, 신입 영상기자로서 자신감 얻고 책임감 느껴

연합뉴스TV 김상윤

영상기자로서 발을 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참여한 이번 2박 3일간의 연수는 취재하면서 필요한 다양한 지식은 물론 타사 영상 기자 선배, 동기들과 교류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 1일 차 나준영 협회장의 <영상 기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강의는 한국 영상기자의 역사와 역할과 위상의 변화에 대한 것이었다. 영상기자를 준비하며 카메라와 영상 이론은 공부했지만, 정작 우리나라 영상기자와 영상저널리즘의 역사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다. “영상의 시대는 비로소 지금부터다. 이 시대의 주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라는 협회장의 말씀처럼 역사의 현장 최 일선에서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취재하는 영상기자가 돼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러진 언론중재위 안백 수 교육팀장의 <언론 중재에 자주 등장하는 현장의 문제들>강의는 최근 5년간의 언론조정 사건 침해 유형들을 소개했다. 특히, 이들 사건의 96.5%가 명예훼손인 만큼 취재로 인해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 더 유의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

이튿날 김병수 MBC 총북 영상기자 선배의 <영상 장비의 발전과 영상 보도의 변화>강의는 ENG 카메라가 어떻게 발전해왔고, 그에 따른

취재방식의 변화에 대해 소개했다. 유튜브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미디어와 다양한 영상 촬영 장비의 발전으로 영상 전문가와 일반인들의 경계가 모호해진 시대 영상기자로서 어떻게 변화할지를 고민케 했다.

김영미 분쟁전문PD의 강의를 통해, 우리언론의 국제분쟁 취재, 보도의 사실함과 여론법 일부 개정의 필요성을 체감했다. 또, 아직도 외신 보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국제보도의 현실을 모두 반성하고 고쳐나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승선 한국언론법학회장의 ‘윤리적 영상 보도 실현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강의는 아직 미완성된 나의 영상취재, 보도에 대한 관점들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범죄 사실은 알 권리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자에 관한 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다.’ ‘촬영허용 행위는 언론보도를 보다 실감나게 하기 위한 목적 외에 어떠한 공익도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이 특히 와닿았다. 범죄보도 관련법들의 구성요건이나 면책요건에 대해선 대학에서 배운 적이 있었지만, 실제 법원의 다양한 판례와 언론중재위원회 사례들을 보고 들으면서 취재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변화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 날 진행된 KBS 윤성구 선배의 강의에선 방송현장에서 영상기자의 장점인 ‘사건대응능력’을 키워 자신의 업무역량을 키워나가는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선배, 동기들과 함께한 2박 3일간의 연수는 30년간 이 일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할지 생각하는 좋은 밑거름이 됐다고 확신한다.



2022 신입 주니어 영상기자 연수 후기

10.29참사취재의 경험 나누며,서로 위로하고 공감했던 ‘별’ 같은 시간

아리랑국제방송 오성택

이번 신입주니어회원연수를 통해 영상기자의 역사, 언론 윤리, 초상권 문제, ENG 카메라의 발전사, 국제보도를 위한 준비 등 실전에 필요로 하는 유익한 내용들을 접하게 되었다. 그중, 강의에 나선 선배들께서 디지털 4.0시대에 영상기자는 촬영과 편집 외에도 기획 능력, 아이템 선정, 글쓰기 능력까지 개인 역량을 넓혀나가 영상기자 역할과 영역을 확장하고 그 역할을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 그리고, 역사의 기록자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상황을 보도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강의가 나의 뇌리에 박혔다. 격변하고 있는 미디어 산업에서 폭넓은 역량을 발휘해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을 담아내는 노력만이 영상기자만의 전문성 있는 경쟁력이라는 의미였다.

연수에 참여한 동료들은 대부분 이태원 참사 취재 경험을 갖고 있었다. 나 또한 서울시장 이태원 합동분향소에 취재를 한 경험이 있다. 이른 아침 6시 취재현장에 도착하여 애도하는 마음으로 묵념을 하고 취재를 시작해, 해가 진 뒤에도 이태원 합동분향소 현장을 지켰다. 취재를 하면서 오열하며 우는 사람들의 표정을 부 과인더로 바라보았고, 소리 내어 우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카메라 속 현장음으로 들었다. 영상기자 준비생 시절에는 사람들의 회로에 락의 표정을 생동감 있게 담아 시청자들과 함께 그 감정을 공유하는 휴머니스트 기자가 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입사 전 패기 넘치던 나의 다짐은 이태원 합동분향소 취재를 다녀온 후 예상치 못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됐다. 하루 종일 들려오는 슬픈 울음소리와 사람들의 눈물을 바라보며 슬픔을 함께 공유했던 우울한 감정의 늪 속에 빠져버

린 적막한 심정이었다.

뉴스를 통해서 정보를 알게 된 주변 사람들은 내가 느꼈던 감정을 함께 공감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연수 동료들은 나의 감정을 함께 공감했었다. 우리는 같은 현장에서 같은 사실들을 경험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연수에 참여한 한 동료는 이태원 참사 당일 취재 현장에서 피해자의 친구가 절박한 마음으로 외치는 “제 친구 좀 찾아주세요”라는 말이 가슴에 남아있었다고 한다.

우리는 그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위로하였고,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건 사고 현장에서 윤리적인 취재 방법을 논의하면서 서로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자의 밤’을 보냈다. 같은 직업을 가진 동료로서 함께 슬픔을 이겨내며 매의 눈으로 시청자에게 사실을 보도하는 기자가 되자는 동료애를 느낄 수 있었던 ‘별’ 같은 시간이었다.

2022 신입 주니어 영상기자 연수 후기

영상기자가 되고자 했던 초심을 되새긴 시간

KBS 김경민

2022 신입-주니어 영상기자 연수 안내 문자를 받고 오랜만에 동기들과 함께 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고 설레기 시작했다. 하지만, 매우 분주한 카타르 월드컵 시즌이어서 연수 시작 일주일 전까지도 타사 영상 기자들은 물론 같은 회사 동기의 참석 여부도 알 수 없었다. 감사하게도 KBS는 선배들의 배려로 전원 참석하였다. 호텔로 도착하자마자 생각보다 뽀뽀한 교육 일정과, 의도치 않은 앞자리 선전으로 오랜만에 학구열이 솟았다.

연수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강의는 이승선 한국 언론 법학 회장께서 진행한 <우리는 왜 윤리적 영상 보도를 실현해야 하나>이다. 영상기자를 지원한 이유를 생각시켰기 때문이다.

영상기자가 되기 전 나는 언론의 자극적이고 무분별한 보도에 질질머리가 난 사람이었다. 당시 우울증을 앓던 가까운 지인이 미디어의 자극적인 보도에 영향을 받는 걸 여러 차례 목격했기

때문인데, 그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조마조마하다. 이후 언론인이 되면 같은 내용이라도 모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기자가 되라고 굳게 마음먹었다. 입사 후 1년, 과연 기자 준비생으로서 가졌던 마음이 여전히 되돌아본다.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내가 든 ENG 카메라가 누군가에게 두려운 존재로 느껴지지 않았을까?

얼마 전 우리예전 이태원 참사가 있었다. 10.29참사는 연수 내내 화두에 올랐다. 수많은 유가족들을 비롯하여 국민 전체가 힘든 참사였기에 쉽사리 깨닫기 어려운 이야기였다. 우리 대부분은 현장 한가운데서 생생한 아픔을 지켜보고 카메라에 담았다. 당시 사건 발생 후 곧바로 회사 내부에 가이드 지침이 전달됐으나 초반 자극적인 보도로 인한 피해는 막기 어려웠다. 나 또한 언론사 공제를 준비하며 재난 보도 준칙을 달달 외웠지만 이수라장인 현장 앞에선 머리가 하얘졌다. 조금 더 재난 보도 준칙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참혹한 현장 속 흔들리지 않고 침착할 수 있었을까? 단언하기 어렵다. 무겁고 신중한

분위기 속 신입-주니어 기자들은 조심스레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했다. 현장 기자들 수십 명이 유족들에게 불어 따라가면서 멘트를 유쾌하게 발생했고, 슬픔에 잠긴 유족에게 일종의 2차 가해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며 자정의 목소리로 내었다. 또, 각종 재난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 어떻게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다. 이런 자리가 없었더라면 마음 한구석에 해소되지 않는 감정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마냥 무겁기만 한 자리는 아니었다. 아픔과 책임감을 잠시 내려두고 이튿날 밤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전을 함께 관람했다. 마지막 경기, 연수 마지막 밤이라는 생각이 하나 된 마음으로 열심히 응원했다. 경기 마지막 황희찬의 기적 같은 역전 골로 대한민국이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을 때, 모든 참석자들이 핸드폰을 켜 16강 일정을 확인하던 웃픈(웃기고 슬픈) 광경은 잊지 못할 것이다. 2박 3일의 짧은 연수를 뒤로 하고 이제 현장에서의 서로 반갑게 인사할 모습을 기대한다.

월드컵 역사상 다신 없을 카타르 월드컵

SBS 김용우 기자

처음이자마지막일 도시 월드컵

이번 카타르 월드컵의 가장 큰 특징은 경기장이 모두 모여 있었다는 점이다. 큰 스포츠 이벤트인 월드컵과 올림픽의 차이점은 올림픽은 ‘도시’를 선정하지만, 월드컵은 ‘국가’를 선정한다. 최근에 있었던 도쿄 올림픽은 일본의 도쿄라는 ‘도시’에서 했고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카타르라는 ‘국가’에서 벌어진 이벤트였다. 그런데 워낙 작은 나라이다 보니 수도인 도하 인근에 모든 경기장이 몰려있어서 뜻하지 않은 돌발 상황을 챙기는 경우가 빈번했다.

조별리그 첫 번째 경기부터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이기면서 갑자기 카타르에서 중동 관중 취재를 하기도 했고, 일본 역시 선전하면서 보통이라면 우리나라 경기에만 집중했던 지난 월드컵과 달리 주변국 취재도 자연스럽게 동반되기 시작했다. 기존에 있었다고 들었던 상대국 취재담당, 우리 대표팀 담당 등 각자의 역할이 나뉘어 있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시간이 되는 취재진이 움직이기 일쑤였다. 그래서인지 그동안 선배들이 술하게 이야기했던 매일매일 비행기를 타고 짐싸기의 달인이 된다는 경험은 아쉽게도 하질 못했다.

사실 취재진들에게는 가장 일이 많았던 월드컵이겠지만 축구팬들에게는 앞으로 도 없을 행복한 월드컵이기도 했다. 마음만 먹으면(돈도 충분히 있어야지만) 거의 모든 경기를 직관하며 쟁겨볼 수 있는 월드컵이었다. 실제로 SBS 해설위원인 장지현 해설위원은 조별리그 하루에 4경기씩 있었는데 최대 3경기까지 직관으로 쟁겨봤다고 했다. 이런 월드컵 현장에서 모든 참가국들의 기운을 온전히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는 건 한 사람의 축구팬으로써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심기가 밍’ 예상할 수 없는 카타르 취재

역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월드컵만큼이나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은 건 음주의 유무였다. 공식 스폰서인 버드와이저도

결국 카타르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만 맥주판 매가 가능하다는 한시적 허가만 겨우 받았다. 공식 스폰서도 이런데 취재진들에 대한 처우는 말도 못했다.

한마디로 정해진 게 없다. 카타르를 가기 전 아랍에미리트(UAE)에 상대국 취재를 먼저 갔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였다. SBS, KBS, MBC 모두 카메라를 가지고 입국을 했는데 모두 상황이 달랐다. 누구는 그냥 통과를 시켜주고 누구는 한국에서 카르네를 발급 해와도 통과시켜주지 않았다. 동통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누군가의 심기가 골 뻘이었다.

당연히 카타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개막 전 텐마크의 한 기자는 라이브도중 경찰의 제지를 받았는데,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었던 일 이었는데 그 취재진들에게 그저 먼저 벌어진 사태임이 분명했다. 경기장과 훈련장을 드나들며 누구는 벨트를 벗으라고 하고 누구는 풀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장비비를 일일이 검씩하고 또 다른 사람은 통과시켜주고 기준이 없었다. 정당하게 요구를 하고 합법적으로 대응을 해도 그 경찰이 안 된다고 하면 그저 안됐다. 현지에서 가이드를 해준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런 건 너무나 당연한일이라는 듯 중동에 살면 당연하게 넘어가야하는 부분이라는 답변뿐이었다. 경기장 안에는 공식 스폰서의 음료만 반입이 되는데 코카콜라의 제품인 스프라이트를 본 경찰이 막무가내로 이거 코카콜라 아니니까 라벨 벗기고 들어가라는 상황까지 펼쳐지니 그냥 이상한 사람이 안 걸리기 바라면서 취재할 수밖에 없었다.

MNG장비를 이용한 현장취재영상의 다양한 활용 늘어

이번 월드컵에선 정말 다양하게 우리가 취재한 그림을 활용했다. 기존의 보도 방식은 경기관련 리포트는 전부 중계그림으로 리포트를 하고 기자 스탠딩만 ENG 영상이 쓰이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당연히 중계그림이 더 좋은 포지션에서 다양한 앵글이 나오지만 뉴스 리포트에 활용하기 아쉬운 부분들도 존재했다. 이번



월드컵에선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 연예인을 찍처럼 90분 내내 손흥민만 촬영하는 손흥민 직캠은 물론 피치위에서 공을 잡지 않은 유리선수들만 찍는 영상들도 다양하게 존재했다.

기존과는 다르게 MNG를 통해 실시간으로 ENG영상도 인제스트가 되면서 시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도 있었지만 카타르라는 특수성으로 모든 출장자들이 한 경기에 투입이 가능해 좀 더 다양한 영상을 쫓길 수 있었다는 점도 영향이 있었다고 본다. 이렇게 다양한 소스로 영상이 들어오다 보니 뉴스에서도 중계그림이 아닌 ENG영상을 많이 활용하고 각 방송사마다 다양한 그림의 보도영상을 보는 재미도 있었다. 비단 뉴스뿐만이 아니라 각 방송사의 유튜브채널을 통해서 추가 콘텐츠를 생산하면서 뉴스에 활용되지 못한 영상들도 다양하게 재생산이 되는 모습을 보는 것도 현장에서 촬영하는 영상기자 입장에서선 뿌듯한 부분이었다.

같은 회사 영상기자 선배들과 현장에서 협업하는 소중한 경험

영상기자의 아이러니한 점은 같은 조직에 속해있지만 그 조직의 사람들과는 같이 일을 할 기회가 많이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다른 회사 사람들과 더 많이 일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 스포츠 이벤트 출장은 영상기자라면 꼭 경험해야 하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서원들과 같이 지내며 협업을 해본 경험은 나중에 혼자서 취재하게 될 다양한 현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4장에 진출한 2002 한일 월드컵보다 이번 2022 카타르 월드컵이 나에게 는 가장 특별한 월드컵이 되었다.

<카타르 월드컵 거리응원 현장 취재기>

뉴스의 중심에 선 ‘사람들’을 위해 그들과 등지고 서다.

MBC 정영근 기자

지난 11월 28일, 가나전이 열렸다. 나는 광화문 광장에 있었다. 카타르 월드컵 거리 응원 취재를 위해서였다. 광장은 추웠다. 저녁 무렵부터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 빗방울이 점점 굵어졌지만, 시민들은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우리 대표팀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였다. 누군가는 얼굴에 큼직한 축구공을 그렸고, 또 누군가는 목청 높여 ‘대한민국’을 연신 외쳤다. 혼자 온 사람도 있었고 여럿이 온 사람도 있었다. 응원의 방식은 저마다 달랐으나 한 가지 공통점이 보였다. 모두가 추위에 오들오들 떨었다.

목적지인 거대한 전광판 앞에 도착해서 초록색 핫팩을 하나 뜯었다. 위아래로 연신 흔들어 보았지만, 냉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취재장비들이 온통 찜뎠던 탓이라 여겼다. 곧이어 경기가 시작됐다. 사람들의 머리 위로 거대한 태극기가 지나갔다. 맨 앞에 복채를 켜 응원단이 동동 북을 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와아아~’ 하는 소리가 광장을 가득 메웠다. 사람들 는 거대한 전광판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화면 속 선수들의 움직임에 따라 감정을 이리저리 바꿔 내보냈다. 우리 선수가 기회를 잡으면 환호했고, 상대에게 골을

내주면 속상해했다. 두 눈을 짙은 감기도 했고, 동그렇게 뜨기도 했다. 조규성 선수가 헤딩으로 멀티골을 터뜨렸을 땐, 너 나 할 것 없이 광장이 들쭉였다.

나는 경기를 볼 수 없었다. 아마 광장에 있던 대부분의 취재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다. 응원하러 온 시민들과 달리 취재진은 거대한 전광판을 등져야 했기 때문이었다. 응원 나온 시민들이 울고 있을 때마다 저마다의 렌즈에 그들의 표정, 몸짓을 담아야 했다. 우리 선수가 골 망을 흔드는 순간에 더욱 그렇다. 골 들어갔다는 해설진의 흥분 섞인 목소리를 그저 귀로 들을 뿐이었다. 눈은 뷰파인더 속에서 바빠 움직여야 한다. 양손은 각각 화각과 초점을 조절해야 한다. 눈은 뷰파인더 속에서, 양손은 카메라 위에서 바빠 움직여야 했다. 그래서였을까. 경기가 끝난 뒤, 결정적인 장면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다. 포르투갈전, 브라질전 취재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번 월드컵 거리응원 취재를 통해 한 가지 느낀 바가 있다. 영상기자란 직업이 무언가 ‘등지는 일’이 제법 많다는 점이다. 집회 현장에서 군중을 비추다 보면 단상 위의 발언자를 등진다. 누리호 발사 순간을 기억하려 고층까지 온 시민들의 표정을 카메라에 담다 보면 로켓 하나가 굉음을 내며 날아간다. 그렇게 등지다 보면



등진 무언가를 촬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심지어 눈에 담지 못할 수도 있다.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다.

그러나 무언가를 등질 수 있다는 건, 그보다 더한 가치를 지닌 존재가 우리 앞에 놓여있기 때문은 아닐까. 바로 ‘사람’이다. 우리는 뉴스를 만든다. 뉴스의 중심엔 사람이 있다. 정치, 경제, 뉴스부터 사회, 문화, 심지어 날씨나 교통정보 뉴스까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등지는 순간을 늘 아쉽게 생각하려 한다. 등질 수 있는 순간이 내가 이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 같기 때문이다.

카타르 월드컵이 끝났다. 언제 또 거대한 전광판을 등지는 날이 올지 모르겠다. 그때도 지금처럼 선수들의 화려한 플레이는 보지 못할 것 같다. 그래도 좋다. 그 대신 수만 명의 시민들이 웃고 우는 모습을 오롯이 지켜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제36회 한국영상기자상 후보작을 공모합니다.

- 시상부문
 - ①뉴스특종단독부문 ②지역뉴스특종단독부문 ③뉴스탐사기획보도부문
 - ④지역뉴스탐사기획보도부문 ⑤보도특집다큐부문 ⑥멀티보도부문
 - ⑦‘세로로 읽는’부문 ⑧인권-노동보도부문 ⑨국제-통일보도부문
 - ⑩환경보도부문 ⑪문화-스포츠보도부문 ⑫특별상
- ※ 특별상은 각 부문별 이외에 영상기자로서 모범적이고 뛰어난 활동을 한 자, 또는 한국영상기자협회 비회원으로서 언론분야에서 모범적이고 뛰어난 활동을 한 자.
- ※ 대상은 수상작 중에서 선정
- ※ 공모 작품의 성격이 복합적인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부문을 조정할 수 있다.

- 자격
 - ▶ 한국영상기자협회 정회원
- 출품 대상
 - ▶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원사를 통하여 방송된 보도 영상물 또는 온라인으로 송출된 작품
- 접수 기간
 - ▶ 2022년 12월 28일부터 2023년 1월 16일(월) 오후 5시까지 업로드 완료
 - ※ 접수 기간 및 시간 엄수
- 문의
 - ▶ 한국영상기자협회 사무처 (Tel. 02-3219-6476~7)

- 제출 서류
 - ▶ 추천서 1부(소정양식)
 - ▶ 공적설명서 1부(소정양식)
 - ▶ 사진(영향력/열공사진) 1매
 - ▶ 관련자료 (방송보도물 및 인터넷으로 송출된 작품 파일)
 - ※ 소정 양식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할 것
 - ※ 공적설명서 내용을 자세히 기재할 것
 - ※ 단제일 경우에는 부사나 팀명으로 선정
 - ※ 소정양식은 한국영상기자협회 홈페이지 (www.tvnews.or.kr)에서 다운로드
- 제출 방법
 - ▶ 작품을 ‘MP4’ 파일로 변환하여 추천서, 공적서와 함께 한국영상기자협회 홈페이지 폼에 드 한국영상기자상 게시판에 업로드 완료
 -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있는 ‘웹하드 사용하기’ 배너를 누름 시 폼하드 페이지로 이동
 - ▶ 폼하드 공용 아이디 - (아이디: news / 패스워드: news6476)
- 심사
 - 1) 예선 심사 대상
 - 당해년도 이달의 영상기자상에 출품하지 못한 작품
 - 이달의 영상기자상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작품
 - 2) 본선 심사 대상
 - 예선 심사를 통과한 작품
 - 당해년도 이달의 영상기자상 수상작
 - ※ 수상작 중 공적설명서 등 변경 또는 추가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제출

카메라앞의 여러 감정들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영상기자

신입회원인사말 / SBS 양 지 훈

ENG카메라앞에는 여러 감정이 있습니다. 웃음, 희열, 눈물, 슬픔, 분노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비록 ENG를 들고 현장을 뛰어다니는 지체 6개월이 되지 않았지만, 저는 그 감정들을 기록하며 기억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제가 마주한 현장과 그 감정들을 그저 지나 보내지 않는 영상기자가 되려고 합니다. 2022년 여름, 용산 전쟁기념관 앞의 강렬했던 분노의 감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은 영상기자가 된 후로 처음 나간 현장이었습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저지하려는 학부모들은 타는 듯한 태양과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그들의 뜻을 굽히지 않고 구호를 제창했습니다. 분명 그들의 감정은 동의할 수 없는 정책에 대한 분노,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감정을 기록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10월 끝자락의 이태원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참사 당일 바로 이태원으로 이동해 참사를 기록했습니다. 정신없이 도착한 그곳에는 제가 감히 헤아리지 못할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같이 온 친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일행을 잃어버린 한 청년은 바로 눈물을 쏟아낼 준비가 되어있을 듯 했습니다.

다.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도 그의 목소리와 시선의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그런 그를 보며 슬프고 떨리는 감정을 가까스로 누르고 녹화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렇게저는 그날의 현장과 감정을 ENG에 기록했습니다.

외투가 더 두꺼워지고 기온이 영하를 넘나드는 추운 겨울, 울겨울의 광화문은 태극전사를 응원하는 ‘붉은악마’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너도나도 붉은색 옷을 걸치고 빛나는 빨간 빨 머리띠를 찬 시민들의 표정에서 설렘과 열정이 보였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하면 피하기 바빴던 다른 현장과 달리 너도나도 ENG 앞에 서서 활짝 웃고 떠들었습니다.

본인이 언제 텔레비전에 나오나며 일행들과 지친 웃음은 제가 ENG 뒤에서 본 어떤 표정보다 밝았습니다.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추운 날씨에도 이들의 열정이 현장을 가득 채워 저희는 추위를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앞에 선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감정들을 지금껏 현장에서 만나왔습니다. 영상기자가 되고 지금까지 만난 사람 수보다 수십배, 수백배의 사람들을 앞으로 만나겠죠. 그들의 감정에 휘둘려 일을 그르치는 영상기자가 아니라, 맑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



한 뒤에 마주한 감정들을 기록하며 그저 지나 보내지 않는 영상기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기자 생활의 끝자락에 서서 지나온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그들의 감정을 숨겨둔 보물처럼 조금씩 꺼내보며 “나는 좋은 영상기자의 시간을 보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SBS 영상기자가 되어 한국영상기자협회 신입회원으로서 선배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마주할 선배 영상기자들에게 이 글을 빌려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영상기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퍼스트 게이트키퍼, 영상기자”

신입회원인사말 / MBN 안 지 훈

“뻥! 뻥!”
“하나 둘 셋 넷 다섯 ...”
“거기 좀 비켜주세요!”

이태원 헬러인 축제 경찰 동행 취재를 마친 후 인파를 뚫고 거리로 나왔을 때 얼마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수십명의 사람들이 CPR(심폐소생술)을 하는 도로 위, 생사를 오가는 사람들을 이송하기 위해 뛰어다니는 구급대원들과 길목을 확보하려는 경찰들의 호루라기 소리 사이에서 나는 딜레마에 빠졌다.

영상기자로서 현장을 담아야 하는지, 구조에 방해가 되지 않게 시민들과 함께 길목을 터줘야 하는지, 생사를 오가는 사람들 앞에서 카메라를 드는 게 맞는 건지 등 영상기자로서 딜레마에 빠진 것이

다.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에서도 읽었고, 수습 교육 때도 선배에게 희생자는 촬영하면 안 된다고 배웠지만 액버튼을 눌렀다가 길목을 터주고, 다시 자리를 잡아 레코딩 버튼 누르기를 반복했다. 영상기자로써 현장을 기록해야 하는 사명을 저버릴 수 없었다. 희생자를 카메라에 몇 차례 담고서야 현장에서 답을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찾았고 경찰들과 소방대원들이 프레임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영상기자는 현장의 최일선에서 시청자들이 사건과 관련해 무엇을 보고 들어야 하는지 가장 먼저 결정해 녹화버튼을 누르는 퍼스트 게이트키퍼라고 할 수 있다. 취재를 준비할 때는 어떤 장비를 활용



해야 보다 효과적으로 시청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지, 취재할 때는 무엇을 어떤 구도와 무빙으로 담아야 할지 등을 일차적 게이트키퍼로서 결정한다.

이로써 한명의 영상기자가 취재한 영상으로 인해 사건과 관련한 정국이 뒤바뀌고, 여론이 형성된다. 영상기자가 된 지 반년이 지났

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긴장되고, 취재 후에는 항상 아쉬움이 남는다. 취재원과 마찰이 생길 때도 있다. 그럼에도 다양한 현장에서 다양한 취재원을 만나고, 세상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영상기자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처음 네임수퍼에 이름이 나갔을 때처럼 가슴엔 설렘과 책임감이 벅차오른다.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이 떠올라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신입회원인사말 / SBS 이상학

“야, 너는 벌써 볼 장 다 봤겠는데?”

카타르 월드컵 조별예선 가나전의 거리 응원 취재를 다녀온 뒤 어느 선배께서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7월 1일자로 입사해 켜 요란한

하반기를 보내던 터였습니다. 8월의 폭우로 강남 일대가 물에 잠겼으며, 9월에는 태풍 한남호가 포항을 비롯한 남부 지방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10월에는 아직도 밀기여러울 만큼 참담한 사고가 이태원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신입회원 인사를 적는 어제오늘은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의 열기가 채 식지 않은 듯하기도 합니다.

고작 반년간의 분주함을 몇 문장으로 소개하자니 유난을 부리는 것은 아닐까 민망하기도 합니다. 입사하자마자 고생이 많다는 뜻으로 가볍게 톡 던지신 것일지도 모르는 선배의 그 한 마디는 영상기

자로서의 삶을 내다보게끔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들부터 그로 말미암은 시민들의 희로애락까지, 아이 템마다 내용의 중차대함과 감정의 깊이라는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액션과 리액션의 끝없는 반복을 목격하고 촬영하는 제 모습이 어렴풋이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막연한 기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취재자랑에 몸을 싣고 회사로 돌아올 때면 현장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이 문득 떠올라 아쉬움이 남곤 합니다. 바쁘게 일정들을 소화하는 와중에도 뉴스 제작에 필요한 영상들을 또 박포박 취재하고 싶다는 욕심이 커지는 요즘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선배의 말씀처럼 장을 다 보려면



한참 걸릴듯합니다. 어쩌면 평생 다 못 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감히 듭니다.

이제 막 영상기자로써 발을 뻗 SBS 영상기자 이상학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저널리즘의 가치를 보여주는 영상기자가 되겠습니다”

신입회원인사말 / MBN 이 성 민

쉽지 않은 수습 기간이었다. 입사 후 사회팀으로 다양한 현장을 취재 다녔다. 처음 나간 쪽우 현장에서는 면접에서 질문 받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것인가, 취재할 것인가”라는 현장이 똑같이 눈앞에서 펼쳐졌다. 6개월간 홀로 현장에 나가서 다사다난한 경험을 했지만, 선배들의 조언과 가르침을 떠먹여 주셔서 잘 보낼 수 있었다.

지난 6개월간 가장 기억에 남는 취재를 뽑자면 유동규 단독 인터뷰.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으로 재판받은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382일 만에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출소 후 첫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공판에서 몇 마디를 건넸지만, 그의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기에는 짧은 순간이었다.

유 본부장이 공판을 마친 후 목적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처의 공원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들어간다는 정보를 획득했다. 겹은 나에게 취재 기회를 주었다. 약속된 공원에 도착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차량은 멈췄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마스크를 벗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 달라는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다. 출소 후 처음으로 그의 마스크를 속 너머의 얼굴을 보여준 순간이었다.

유 본부장은 수 분간 내가 든 카메라 앞에서 단독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출소 후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유 전 본부장은 인터뷰에서 ‘검찰유죄설’을 부인하였다.

또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해 대대적인 폭로도 예고했다. 그동안 보도되지 않았던 것을 전달하는 영상

저널리즘의 가치를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영상기자가 될 것이다. 영상기자의 눈으로 적극적으로 발제를 하여 영상 저널리즘의 가치를 증명할 것이다. 영상 취재 도구에 관한 공부도 끊임없이 이어 나갈 것이다.



저널리즘의 가치를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영상기자가 될 것이다. 영상기자의 눈으로 적극적으로 발제를 하여 영상 저널리즘의 가치를 증명할 것이다. 영상 취재 도구에 관한 공부도 끊임없이 이어 나갈 것이다.

협회창립 35주년 기념 모바일 회원수첩 제작

언제 어디서나 회원 검색 · 소통, 협회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돼

협회는 창립 35주년을 기념하여 새롭게 모바일 회원수첩을 제작해 내년 초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새로운 모바일 회원수첩은 기존의 종이 회원수첩을 대체해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회원사, 직급, 입사연도별로 동료 회원들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협회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게 공지사항, 경조사 알림, 협회 일정, 협회 갤러리, 자유게시판 등의 기능도 제공된다.


모바일 회원수첩은 안드로이드와 애플폰 모두에서 앱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었다.

새 모바일 회원수첩은 회원들은 물론이고 명예회원들의 정보도 수록해 협회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

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주아 (kja647@gmail.com)

※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기자 Korea Video Journalist Association

발행 · 편집인 | 나준영

편집위원 | 김용민, 김재욱, 김준모, 김현기, 김현석, 김형수, 박태범, 양재혁, 양현철, 유종현, 이지호, 이한빈, 정영근, 전상범, 정중배, 현세진, 황종원

취재기자 | 안경숙 **행정** | 오주아, 이경선 **제작** | 미디어이

1999년 4월 23일 창간

2019년 8월 19일 등록번호 양원. 마(00009)(격월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영상기자협회 홈페이지 http://www.tvnews.or.kr

팩스 : 02 3219-6478 / 전화 : 02 3219-6476-7

한국영상기자협회

우) 0799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5층



신혼부부
지훈♡유진씨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초년생 민준씨가
월세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수빈씨가족이
이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

H

당신의 희망이 삶으로 이어지도록

내가 든든한 주거사다리가 되겠습니다

내 희망과 삶을 잇는
든든한 국민생활 파트너 **내H**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LG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푸른 지구를 되찾을 시간

탄소배출을 줄이는 기술부터 다 쓴 자원을 재탄생시키는 기술까지
LG의 클린테크가 깨끗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미래, 같이

다 같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가치 만들기,
LG가 함께 하겠습니다.



LG